

몸과 마음의 양생을 추구하는 동양화가 최혜인

양생.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건강관리의 의미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다.

동양화가 최혜인 작가는
자신을 ‘몸과 마음의 양생을
추구하는 작가’라고 소개한다.
그의 작품은 평범한 일상 속
식재료에서 시작된다.
그는 식재료에서 발견한
우주의 순환과 조화를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OverDOSE에 작품과 함께 <그림, 살림> 에세이를 연재하고 있는 최혜인 작가를 2024년 9월, 그의 <숨길>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삼청동 갤러리 도울에서 만났다. 그의 작품의 소재는 주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식재료다. 그는 어느 날 냉장고에 있던 오래된 감자에서 싹이 트 것을 발견하였다. 썩어 상할 줄 알았던 감자가 싹을 틔우며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자세히 보니 인간에게는 독이지만 감자에게는 생명의 연장으로 싹을 틔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식재료에 대한 탐구와 이를 작품으로 연결시킨 것이 <감자 속 사막> 전시이고 본격적인 작업의 첫 시작이었다. 싹튼 감자는 인간에게는 쓸모없는 '소멸'이었지만 감자 입장에서는 '생성'의 시작이 된다. 그는 감자에서 죽음과 탄생, 소멸과 생성의 순간을 보았다. 그가 본 식재료는 번식과 순환의 과정을 통해 생명력을 뿐내는 하나의 소우주다.

부엌에서의 노동은 곧 먹거리와의 교감이자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과도 같았다. 그에게 부엌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공간이자 작품 창조의 원천이다. 그는 얹힌 콩나물을 다듬으면서 풀고 느타리버섯을 다듬고 쌀이나 콩을 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감정들을 작품으로 표현한다고 했다.

식재료를 소재로 한 그의 작품은 정물화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풍경화처럼 보인다.



입하 The beginning of summer
리넨 캔버스에 과슈, 아크릴 130x162, 2023



예를 들어 <입하>라는 작품은 상추가 물에 잠긴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입하는 만물이 물을 머금고 생장하는 절기다. 물에 잠긴 상추를 통해 이를 표현하였다. 상추를 그린 것 같으면서도 나에게는 호수와 설산, 그리고 물에 비친 반영을 표현한 풍경화처럼 보였다. 상추는 정물이지만 자신만의 세계를 갖춘 소행성이기 때문에 <입하>는 상추 속 세계를 표현한 풍경화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자세히 보면 물속에서 상추가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정물화이면서 풍경화 같고, 식물이면서 숨 쉬며 움직이는 동물 같고, 음과 양의 조화가 다 들어있다는 것. 음양오행과 평소 조화로운 상태인 중용을 추구하는 최혜인 작가의 삶의 철학이 작품 속에 담겨 있다. 작품은 한지에 색을 입히고 말린 후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한다.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시간이 채색과 함께 쌓여있는 듯했다. 작품 속 팔죽색과 녹색의 조화로움이 눈에 띠었는데 궁궐의 단청 색에서 모티브를 땄다고 했다.

작품과 작품에 담긴 철학 등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삶을 대하는 태도를 다룬 한 권의 철학책을 읽은 느낌이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식물에서 삶을 발견하기도 한다. 토마토의 생장 속도가 다른 것을 보며 저마다 성장 속도로 다른 육아를 떠올린다. 강낭콩을 심으며 마지막 결과물인 씨앗이 다시 싹을 틔워 시작이 되는 순환을 발견한다. 그는 결국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순환의 연장이라고 한다.

작가가 본 식물은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소행성이다. 그 자체가 행성이며 자신만의 완결함을 갖춘 하나의 세계다. 식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 작가는 인간 또한 각자의 세계관을 갖춘 하나의 소우주이며 일상은 내 몸이라는 소우주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끼니와 끼니 사이를 하나의 생이라고 볼 때 우리는 지속해서 먹으며 생을 이어갑니다. 그 속에 삶이 녹아 있고 이렇게 둘고 도는 우리의 일상은 소행성인 거죠."라고 덧붙였다.

일상의 행복을 대하는 그의 자세에서도 일관된 중용과 조화로움이 돋보인다. 하루 중 아침을 요가로 시작하는데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비우고 음미로 다시 자신을 채운다고 했다. 생기를 북돋는 것을 양생이라고 한다. 최혜인 작가는 자신을 '몸과 마음의 양생을 추구하는 작가'로 표현하였다.

물리적인 몸과 정신적인 마음의 조화, 곧 중용을 추구하는 것이 양생(생기를 북돋는 행위)이고 곧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통해 생기가 가득한 삶을 추구한다. 비우면 채우고 채워지면 다시 비우는 삶.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삶이 그의 행복의 시작이다.

최혜인 작가는 작품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하는데 자신의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생각을 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해 줄지 모르겠다고 겸손하게 말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바뀌며 이를 뒤쫓기 바쁜 시대, 다른 것과 비교하며 나의 행복을 판단하는 시대에 식자재의 관찰을 통해 작가가 본 세계관은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으며 개인은 자신만의 완결한 우주를 갖춘 존중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작가의 메세지인 깜깜한 동지가 되면 따뜻한 팔죽을 먹어 양기를 보충하고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다시 희망으로 가는 순응하고 순환하는 조화로운 삶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해 보인다. 그는 허황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작가로서 가장 개성이 있다고 했다. 부엌에서 발견한 거대한 우주, 최혜인 작가의 이야기이자 그의 정체성이다.

그의 작품 중 <튀어 오르다, 봄>이라는 작품이 얼마 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년에 한 번 소장품을 구매하는데 선정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접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에 구매한 소장품을 다음 해에 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OverDOSE에서 한 번 더 취재를 갈 예정이다. K컬쳐가 전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그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화가들 아닐까? 그중에서도 최혜인 작가의 작품과 같은 한국적인 정서가 담긴 동양화가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궁금하다.

다음은 최혜인 작가와의 일문일답.

이번 전시 <숨길>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인간뿐 아니라 식물, 동물, 심지어 대지도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자연의 숨의 통로라고 볼 수 있는 절기를 통해 그물망처럼 얹혀 공생하는 생명과 그 변화를 다양한 재료로 표현한 전시입니다. 천지인(天地人),



하늘과 땅, 인간의 숨길을 달과 별자리, 모성, 땅에서 난 생명의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지, 캔버스, 도판(세라믹) 등에 표현했습니다. 곡식과 채소를 소재로 한 숨길의 흔적들은 평범한 일상에서 출발해 하늘과 땅속으로 들어가 꿈꾸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양생을 추구하는 작가라고 본인을 소개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결국 작업이란 것은 마음, 생각을 물질로 시각화하는 것이고 자아를 찾아가는 일종의 수련의 과정입니다. 이런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몸의 건강입니다. 늘 “내가 먹은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며 땅에서 난 생명의 먹거리로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늘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자연을 몸으로 받아들여 생명의 동력을 얻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근본인 몸과 마음의 생기, 양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을 비워내면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명상’으로 비워내고 ‘음미’로 채웁니다. 음과 양처럼 모든 대비되는 것들이 변화를 생성시킵니다. 물리적인 몸과 정신적인 마음, 이 중용을 추구하는 것이 양생(생기를 북돋는 행위)이고 저는 정신 건강과 몸의 건강을 통해 생기가 가득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림의 다양한 재료를 주제로 한 박사 논문을 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황벽, 금분, 백토, 들기름, 진주분 등의 재료가 너무 특이합니다.

그림은 물질로 표현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술이지만 그림이 음악이나 무용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물성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물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벽에다 그림을 그렸고 유화가 나온 뒤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은 소유가 가능하고 컬렉션이 가능합니다. 감상할 때는 항상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재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전시도 꾸준히 많이 하시고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수상도 하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최근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지난 5월 10일간 땅끝마을 해남에서 진행된 <아수라 활활타>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멸해 가는 것들을 기억하고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술 캠프였어요. 선배, 후배들과 하는 소규모 드로잉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이 프로젝트 공모전에 지원했는데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폐교된 초등학교에서 10일간 숙식을 하며 작업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전 문제가 생겨서 민박집, 부녀회관 등으로 나뉘어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루에 침낭을 펴고 자면서 이야기도 나눴는데 그런 경험들이 특별했습니다. 또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조각, 그래피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만나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북두칠성>이라는 작품은 해남에서 첫날 옥매광산 투어를 다녀오고 그린 작품이에요. 해남의 광부들이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에 동원되어 다녀오다가 118명이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탄광에 탄흔의 흔적을 보고 캠프 첫날 북두칠성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첫날 탄광에 탄흔의 흔적을 보았고 총알처럼 죽음이 마음에 관통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 살아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작업을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마음에 안 들었던 작품들을 활활 태워보기도 하고 이를 통해 마음이 정화됨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검은 캔버스에 7개의 구멍을 뚫은 <북두칠성> 작업은 일종의 진혼 그림입니다. 해남에서



복두칠성 The big dipper
캔버스에 과슈, 아크릴, 오일스틱, 뚫기 46x38, 2024

소멸, 죽음, 재생의 순환을 체험해 본 것 같아요.

전시회를 1년에 2-3회씩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전시회 개최는 굉장히 힘든 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결핍' 상태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또 예술이라는 것은 긴 여정이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가는 궁금증과 호기심이 작품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50이 지난 지금부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기가 시작된 느낌이 듭니다. 예술가는 무의식과 만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작품 활동은 나도 몰랐던 나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도 정선이 70대에 그렸어요.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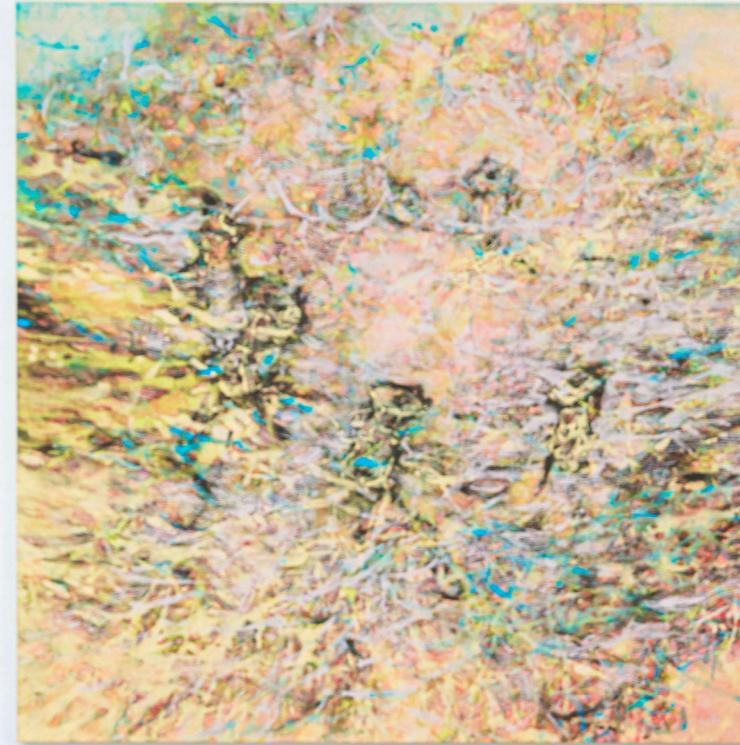
박완서도 40살이 넘어서 등단했고요. 결핍을 채워가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전시도 다음을 위한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대지는 어둠에 빠져들기 전에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알베르트 까뮈 <결혼, 여름> 등 브런치 글이나 전시 소개글의 인용구들도 인상적입니다.

"사자는 코끼리와 싸울 때도 온 힘을 다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한다." 추사 김정희의 말이 마음에 남는데 평소 틈틈이 메모를 합니다. 정민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생각의 힘은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 메모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인터뷰나 소설, 잡지 등에서 인상 깊었던 문구는 적어두는 편이에요.

OverDOSE는 행복을 추구하는 잡지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며 뭐할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어릴 적에는 하교 후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간식(수박화채, 감자튀김, 고구마 맛탕, 식혜, 밤과 대추가 그득했던 야밥, 두꺼운 패티의 햄버거, 바삭하게 구어 꿀에 잔 찹쌀떡 등)을 먹으면서 소설책을 읽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일단 몸의 행복감을 생각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가할 때 행복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예요. 매일매일 요가를 하는 순간만큼은 몸과 대화를 했다는 느낌이에요. 집중과 이완의 반복에서 느껴지는 행복이 있습니다. 또 요가는 조용한 명상입니다.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무아지경에 빠지며 머리가 비고 쉬는 느낌이 듭니다. 요가가 비워내기라면 그 후에는 채워야 합니다. 그걸 저는 음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명상으로 비워내고 하루 동안 경험하고 맛보며 채워 넣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요. 마음의 행복이라면 역시 그림을 그릴 때입니다. 예술가에게는 꿈에서도 만나지 못하는 무의식을 만나는 특권이 있어요. 달나라 여행처럼 미지로 떠나는 여행이랄까.



브런치 작가로도 활동 중이시고 OverDOSE에 정성스러운 글을 기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글쓰기는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브런치에 써 놓은 글들을 재편집하여 OverDOSE 원고를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구슬은 있었지만 어떻게 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원고 작업은 큐레이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편집숍 느낌도 들고. 브런치에 올린 글들이 책으로 나오니 물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또 저에게 글과 그림은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즉, 생각을 그리고 씁니다. '서화동원'이란 말은 글씨와 그림은 그 뿐이 같은 뜻으로 '글'과는 맥락이 약간 다르지만 마치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처럼 생각을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표현 형식만 다를 뿐 같다고 생각해요. 글을 쓰면 논리적으로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고 그림은 보다 더 무의식에 근접해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죠.

마지막으로 작가님을 표현하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해 주세요.

열정, 순응, 자연.
일도 얹지로 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면서 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는 삶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몸이 힘드니 쉬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작업이 있을 때는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또 자연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자연의 뜻은 '스스로 그려하다'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순응입니다. 사람도 강낭콩처럼 각자 다른 성장 속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순응이죠. 열정적으로 일하되 있는 그대로의 것(자연)을 좋아하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응하는 삶. 제가 추구하는 삶이에요. ①